

#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 열전 돌입

### 31일까지 고창군 일원서 한마당 20개팀 등 선수단 600여명 출전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가 주최하고 전북 아동복지협회(회장 박지환)가 주관하는 '제20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28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국에서 선발된 선수단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현 과장, 전라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 유기상 고창군수, 유성업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성경찬 도의원을 비롯해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공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 생활체육구경기장 등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280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축구 24개팀, 탁구 9개팀, 배드민턴 20개팀 등 선수단 600여명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현 과장은 "꿈나무 체육대회는 20년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스스로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을 정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스포츠 문화체육의 기회가 적은 시설의 아동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하고 전북아동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20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로 어울려 함께 즐기면서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화대 예방에 힘써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팀원들과 서로 격려하고 우정을 쌓아온 과정이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느 시군보다 잘 갖춰진 체육 시설이 있는 이곳 고창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용

기와 자신감을 얻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고창군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나무체육대회는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체력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 스포츠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우체국,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동참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29일 전북도가 주최해 남원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다문화어울림축제에서 다문화 가족이 우대받을 수 있는 EMS나 금융상품 등 우체국 사업을 알려주는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홍보관에서는 다문화가족에게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 등 재미있는 게임과 퀴즈, 선물 증정 및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문화가족만이 혜택 볼 수 있는 우편과 금융 등 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쓰기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유기권 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체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사회복지봉사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남원시는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복지 봉사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가 주관해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봉사자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이라는 주제의 교육이 진행 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사업가 표경흠 소장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으며, 민간 사회복지 봉사자들이 협력하고 상호 코칭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실무자의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과 실천 기술을 제공하는 장이 됐다는 평이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떨치고 새로운 열정으로 사회복지 실무로 돌아갈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하을 희망복지 담당은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는 자기 역량개발을 해야 하고 많은 변화가 진행되는 사회복지분야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딸 결혼식 축의금, 저소득층 위해 기부 '귀감'



정읍시청 백준수(사진) 주민지원과장이 지난 27일 딸의 결혼 축의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에 써달라며 행복바이러스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백준수 과장은 "며칠 전 딸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행복바이러스 운동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행복바이러스 계좌에 적립된 후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용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수군 마을활동강사 '문화너름새' 개강

장수군은 지난 28일 장수군 민중의 집에서 '제1기 마을활동강사 문화너름새 입문과정'이 장수군 주관, 장수군 중간지원조직인 (사)장수지역활력센터(이사장 송남수) 주최로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너름새란 '무슨 일을 맡고 주선하는 솜씨'라는 순우리말로,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을 더 이해하게 될 마을활동 강사들이 문화생산자로서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활동강사 경력자 및 활동 희망자 20여명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과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PM(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형 박사(삼농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지역에서 함께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익산원에농협, 조합원 자녀 70명 장학금 전달

익산원에농협(조합장 김봉학)이 지난 28일 모현동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조합원 자녀들에게 5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원협 임원과 해당 조합원 및 배우자, 고교·대학생 자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고교생 27명에게 각 50만원씩, 대학생 43명에게 각 100만원씩 조합원 자녀 70명에게 총 5,650만원이 전달됐다.

김봉학 익산원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원협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준은 물론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